



출판계에 기부문화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인세 기부에서 장서 기부까지 그 방식도 다양하다. 사진은 지은이가 인세의 일부를 기부금으로 내놓은 책들.

출판계의 신문화운동으로 자리잡는 기부문화

저자, 출판사, 기업 등 참여 잇따라

출판계에 새로운 움직임이 일고 있다. 저자들의 인세 기부로 시작된 기부운동이 출판사와 기업으로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개인차원의 기부를 넘어 사회에서 얻은 이익을 되돌려주는 성격을 띄고 있다. 기부운동은 앞으로 출판계의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자리잡아갈 전망이다.

요즘 출판계에 훈훈한 소식이 꼬리를 물고 있다. 릴레이의 첫주자는 소아골수암에 걸려 한쪽 다리를 잘라냈지만 “그래도 내게는 아직 한쪽 다리가 있잖아”라며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대만의 주대관 어린이. 1997년 12살 나이로 짧은 생을 마감한 주군을 기려 만든 ‘주대관 문교기금회’는 주군의 책 《내게는 아직 한쪽 다리가 없다》(김태연 외, 파랑새어린이)의 한국어판 인세 20%를 소아암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을 위해 써달라며 내놓았다.

저자들의 인세 기부가 새로운 풍토 열어

주대관 기금회의 뒤를 이은 두번째 주자는 <해리포터> 시리즈의 작가 조앤 K. 롤링. 그녀는 이번에 출간된 《해리포터 스쿨북(전2권)》(문학수첩)의 판매수익금 전액을 영국의 자선단체 ‘코믹 릴리프’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책의 한국어 판권을 소유한 문학수첩은 “책값의 30% 정도인 출판사측 수익을 코믹 릴리프에 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학수첩 김종철 주장은 “이번 일을 발판 삼아 앞으로 우리나라 소년 소녀 가장돕기, 북한어린이 돕기 등 실질적인 기부운동을 떠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순수 창작물에 대한 기부운동은 이제 시작단계다. 1998년 시인이자 문화평론가인 조병준 씨는 《제 친구들하고 인사하실래요》를 박가서장과 그린비에서 동시에 출간했다. 그는 당시 책의 인세 12%를 여섯 등분해 캘커타에 있는 테레사의 집, 국내 외국인 노동자 단체 등에 성금으로 보내고 자신은 단지 2%의 인세만 받아서 화제가 됐다. 조씨는 “인도친구들에게 받은 사랑을

되돌려준 것뿐이다. 사실 출판사에서 주는 평균 인세가 10%인 점을 생각하면 더 받은 인세 2%는 출판사에서 기부한 셈”이라고 밝혔다.

최근에는 참여연대 사무처장 박원순 변호사가 《박원순 변호사의 일본시민사회기행—가와 리모노를 찾아서》(아르케)의 인세 1%를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했다. 이를 계기로 아르케는 《박원순 변호사의...》의 출판 이익금 1%를 아름다운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존에 출간된 책 및 앞으로 출간될 책에 대해서도 판매이익의 1%를 지속적으로 기부하기로 했다.

소설가 이청준씨의 일화도 있다. 이씨는 얼마 전 출간 20년 만에 100쇄를 돌파한 신간소설 《낮은 데로 임하소서》(홍성사)의 인세 가운데 일부를 새빛맹인교회에 기부했다. 홍성사측에 따르면 “이씨는 새빛맹인교회에서 가져가는 책에 대해서는 인세를 받지 않는다”며, 그 분량이 “한번에 2천여권이 넘을 때도 있다”고 말한다.

인세, 출판이익 기부 등 다양한 참여 줄이어

아름다운재단은 기부운동을 ‘신문화운동’으로 이끌어낸 주역이다. 지난해 9월 설립 후 지금까지 ‘아름다운 1% 나눔운동’을 꾸준히 벌여오고 있다. 재단 관계자는 “인세 1%, 출판 1%, 지면 1%, 글 1% 등 출판계의 다양한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박변호사에 이어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도 저서의 인세 1%를 기부하기로 약정했다. 앞으로 재단에 접수되는 인세, 출판이익 등의 기부금을 공익출판기금으로 조성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간 《작은 이야기》는 지난 6월부터 지면 1%를 재단에 기부해오고 있다. 문인들의 글을 기부받아 ‘나눔의 글잇기’를 펼치고 있는데, 현재 이현주 목사, 정호승 시인이 참여했다. 한달에 한번 꼴로 나눔의 글 잇기는 계속될 예정이다.

이런 기부운동은 책의 지은이뿐 아니라 출판사와 출판사를 자회사로 둔 기업의 참여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범우사의 윤형두 대표는 지난 4월 본신처럼 아껴온 장서 2만여권을 순천대에 기증한다고 발표했다. 최근에는 한솔출판을 자회사로 둔 교육기업 한솔교육도 동참했다. 한솔교육은 매년 세전(稅前)이익의 1%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약정식을 열고 아름다운재단에 2억여원을 기부했다. 한솔교육측은 아름다운재단의 1% 나눔운동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의 임종은 사무국장은 좋은 일에 우리도 빠질 수 없다고 말한다. 임국장은 “아직 협회차원의 지원은 없지만 앞으로 군인과 재소자, 낙도주민들에게 책보내기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내 출판사들은 대부분 심각한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다. 출판사들 사정이 이러니 서점들의 어려움은 더하다. 이렇듯 어려운 출판계 현실을 감안할 때, 힘든 가운데도 선뜻 기부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용기 있는 결단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출판계에서도 기부문화가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 박육순 기자